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2호 【루계 제25335호】 주체105(2016)년 7월 10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연박물관건설과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연박물관건설과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련해주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동천호식당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3년간 매일같이 건투장에 말려나가 건설자들의 일손을 도왔으며 수십차례에 걸쳐 후방물자와 자재를 지원하고 현장경제선동, 이동봉사활동을 벌리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4.15문학창작단 로동자 최철민은 당에서 아끼고 내세워주는 혁명가유자녀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사회주의문명을 더 활짝 꽃피우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함으로써 충정의 가풍, 애국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릉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파장 한명철은 공사첫날부터 건설장에서 기술지도를 잘하는것과 함께 건투원들의 생활에 뜨거운 정을 기울였으며 직장장 류만식은 건설자들이 대중적혁신을 일으키도록 앞장에서 이끌면서 필요한 자재와 기공구, 후방물자를 수십차례나 지원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실장 정윤호도 자연박물관건설전투현장에서 침식하면서 조명장치설치와 관련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여러가지 설비와 물자들을 기증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여온 대외건설지도국 부원 원종군, 문서원 윤강희, 부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로동자 최향미는 중앙동물원개건공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면서 후방사업도 통이 크게 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김은아는 나라의 재부이며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또 하나의 특색있는 교육거점, 문화정서생활기지를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수도건설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일념안고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 로동자 김해영은 들끓는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아 경제선동을 벌리면서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언제나 맡은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는 평양브레관 로동자 강혜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자연박물관건설에 지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조선국제체육려행사 안내통역원 김류경, 류원신발공장 로동자 리은희는 불타는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을 안고 새로운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공사장을 찾아가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국제김일성상수상자인 로씨야의 자브뜨라신문사 책임주필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자브뜨라신문사 책임주필 알렉싼드르 안드레예비치 쁘로하노브가 7일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리길성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에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 있다.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고 백두산대국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영생축원의 마음을 안은 군중들이 만수대언덕으로 올랐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특출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도 천세위인들께서 한생토록 걸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충정의 맹세를 안고 찾는 군중들의 물결이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지방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실현함으로써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자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혁혁한 위훈 창조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장에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장에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난 6월말까지 휘수언제기초타임량의 50%를 해제끼고 흙물길굴착은 70%, 도갱굴진은 총계획의 68%를 수행하고 수문기둥, 언제보강관공사에서도 성과를 거둔데 이어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첫 한달동안에 지난 5월에 비하여 1.2배의 실적을 올린 기세로 7월에 들어와서도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이 성과는 자력자강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어이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떨칠 드높은 열의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혁신창조의 날과 날을 이어온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이 낳은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날에날마다 눈부신 혁신을 창조하여 기어이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기 위한 대담한 목표밑에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심장에 새긴 이곳 일군들은 이미전에 높이 세웠던 공정계획을 철천 앞당기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려단별공사목표와 공사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필요한 자재보장을 따라세우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이 각 려단의 전투현장들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대여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이 맥동치도록 하였다. 각 려단들에서 설비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하나하나 세워나가게 하였다.

일군들의 대담하고 치밀한 작전밑에 충정의 200일전투의 장엄한 진군포성과 더불어 모든 려단들이 총돌격전에 진입하였다.

휘수언제건설장에서 새로운 시대속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평안남도려단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돌격대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다시한번 총폭발시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힘있게 들이댔다. 한천1차가물막이를 실적으로 한데 맞게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를 립체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돌격대원들은 막아나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휘수언제기초공사와 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 언제보강관공사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휘수언제건설에 떨쳐나선 려단들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에 의하여 6월말까지 총기초타임량의 50%가 진행되였으며 여러개의 수문기둥타임이 끝났다. 다른 수문기둥들도 시간이 다르게 솟아오르고있다.

물길굴건설장에서도 새 기적창조의 분분초초가 흘렀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도갱굴진속도를 높여나갔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뼈에 새기고 200일전투 첫날부터 비상한 공격속도로 내달리던 이들은 단 하루동안에 24.8m의 도갱굴진을 진행하여 종전의 기록을 돌파하였다. 이 성과는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을 새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다른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부족한것이 많고 어려운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하루빨리 어머니 우리 당에 승리의 보고를 올릴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안고 도갱굴진에 박차를 가하여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도갱굴진을 맡은 각 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한달동안에 총도갱굴진계획의 25%를 해제끼는 놀라운 성과를 창조하였다. 철파 공사장적으로 6월말까지 도갱굴진은 계획의 68%제선을 넘어서게 되였으며 7월말까지 끝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흙물길건설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련일 창조되였다.

자강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뼈에 새기고 떨쳐나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흙물길굴착을 위한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댔다. 이들은 흙물길굴착을 다그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굴착기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 비약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할 열의에 넘쳐 만리마진군을 다그쳐온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난 6월 21일까지 4만㎥의 토방을 굴착하여 6월계획을 철천 앞당겨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200일전투 첫 한달동안에 물길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현장지휘부와 각 려단의 일군들, 돌격대원들은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7월에 들어와서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총공격 앞으로!

◇ 200일전투로 들끓는 조국땅에 새로운 시대속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더욱 박차를 가하여 려명거리건설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끝냄으로써 당에 기쁨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다.》, 《인민군군인들의 단숨에의 기상을 본받아 맡은 대상건설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위훈을 창조해나가겠다.》

비단 려명거리건설장에서만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다.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의 첫달목표를 돌파한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다달적으로, 련달적으로 이룩해나가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심장이 터치는 신념의 맹세이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튼튼한 보검으로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주체조선은 지금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으며 너도나도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가 되기 위한 혁신운동이 료원의 불길마냥 전인민적운동으로 확산되고있다.

◇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기적과 위훈으로 아로새겨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디서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경쟁열풍으로 부글부글 들끓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뜀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사상정신력으로 모든 난관을 비약의 도약대로 전환시키는 대중적영웅주의운동이며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질적변혁, 질적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자력갱생대진군운동이다. 당 제6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속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기가 펼쳐진것처럼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사회주의경쟁운동이라는데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비상한 견인력이 있다.

전후의 재더미우에서 단 14년동안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떨친 천리마세대의 전통을 이어 새로운 시대속도창조운동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언하려는 바로 여기에 천만군민을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로 호소한 우리 당의 웅지가 깃들어있다. 전체 인민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10년을 1년 맞잡이로 투쟁해나갈 때 세월을 주름잡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 조국은 천하제일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다.

◇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 만리마기수가 되자,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드팀없는 의지이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드높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만리마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벌어지게 하며 만리마작업반, 만리마직장, 만리마농장들이 창조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로 키우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며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고조시켜나가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첫단돌파전의 불길높이 과학연구성과 확대

리과대학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리과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인은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학장 교수 박사 조세영동무를 비롯한 대학책임일군들의 작전과 지휘가 심화되는 속에 지난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200일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교원, 연구사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과정에 전자과학부와 콤퓨터과학부, 화학생물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학부와 연구소의 교원, 연구사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며 조선혁명박물관을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으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도입성과들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각지의 화력발전소들에 나간 여러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미분탄과 연소용공기를 공급하는 기본버너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고 성능높은 석탄선별기를 새로 제작설치하였으며 석탄연소첨가제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화력발전소들에서 석탄의 연소효률을 높이고 많은 석탄을 절약할수 있는 좋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물리학부 연구사인 로력영웅 교수 박사 김유영동무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 나가 지방에 흔한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단열벽돌을 만들어 열처리로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로과학자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가열로의 작업온도까지 올리는데 걸리던 많은 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절반이상으로 단축됨으로써 전력소비를 대폭 줄일수 있게 되였다. 이 성과는 열처리로들에서 샤모트벽돌에 대한 의존성을 완전히 없앨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한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수학부의 교원, 연구사들도 광으로 복합점결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야말았다. 이들은 지난 70일전투기간에는 단천광산기계공장에 화차용수지제동구두생산공정을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수지합성공정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바침으로써 현장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학의 생산현장에 나가 암모니아합성공정에서 생산량을 종전에 비해 훨씬 늘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성과는 단천지구의 여러 공장, 광산에 나간 교원, 연구사들속에서도 이룩되고있다. 화학부 실장 송학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대흥청년영웅광산에 나가 현장로동계급과의 창조적협조밑에 마그네사크링카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인 무연알탄점결제의 국산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주변에 흔한 린징교원, 연구사들의 투쟁은 효능높은 농작물성장조절제를 생산도입하고 연유소비량을 훨씬 줄이면서도 기관출력을 높일수 있는 첨가제를 도입하며 양어장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느 한 닭공장에서 제기되고있던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지의 여러 전투장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화학생물학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박성진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의약품들의 생산도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기초과학연구에서 대학이 이룩하고있는 성과가 대단히 크다. 력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비선형복잡계에서 카오스와 프락탈연구에서 국제학계의 관심을 모으는 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올해에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특히 2015년 우리 나라 최우수과학자, 기술자의 한사람으로 선정된 이 연구집단의 실장 박사 최철웅동무는 세계적인 초점대상으로 되고있는 복잡계리론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의의가 큰 가치있는 여러건의 론문들을 발표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세계과학원—유네스코 회원으로 선출되였다. 지난 4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수학잡지의 평론가로 요청을 받은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사 리성일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많은 교원,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연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리과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본사기자 려명희

사회주의건설장에 더 많은 세멘트를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지원의 숭고한 뜻을 안고 헤쳐가신 력사의 새벽길

지원의 숭고한 뜻 가슴에 새기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 만경대혁명사적관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넘쳐나는 7월의 조국강산이다.

이 아침,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22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0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던 주체83(1994)년 7월 5일이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수 붓을 드시고 활달한 필체로 한자한자 써나가시였다.

《김형직사범대학》.

붓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현판을 쓰고보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생명을 준 혈육인 동시에 혁명의 길로 쉼임없이 인도해준 스승이였고 지도자였다고 회고하시였다.

지원의 숭고한 뜻을 품으시고 한생을 불같이 사시며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그이의 빛나는 한생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더욱 높이 울려퍼지는 불후의 명작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민중이 총칼을 들고일어나 원쑤와 싸워 나라도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세상도 세워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 고심하여 찾아낸 결론은 이러하였다. 이것이 다름아닌 무산혁명방침이였다.》

1894년 7월 10일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심장을 짱그리 불태우신 견결한 혁명투사이시였다.

지원의 높은 뜻을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5(1916)년 3월 중순 지금의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로 혁명활동의 거점을 옮기시고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시였다.

당시 일제의 조선강점후 반일비밀결사들이 일부 나왔으나 그것들은 핵심대렬이 약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여 결국은 일제의 폭압에 견디여내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선행한 반일투쟁의 이러한 교훈을 환히 꿰뚫어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봉화리에서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시는 한편 국내외의 여러곳에서 혁명조직의 핵심을 키우고 광범한 인민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그리고 새로 무을 조직의 투쟁목적과 과업, 조직의 형태와 조직지도체계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가시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혁명조직의 투쟁강령과 활동규범을 규정하고 창립선언을 작성하는데 정력을 기울이시였다.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오래동안 면밀히 준비해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6(1917)년 2월에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소집하신데 이어 3월 23일 평양 하탕골에 있는 리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는 력사적인 회의에서 2천만동포를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힘을 키워가지고 민족자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자면 강력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직의 명칭과 형태, 투쟁목적과 방법, 수행방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조선독립을 위한 투쟁은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힘에 의거하여야 승리할수 있다는 반제자주적립장이 뚜렷한 조선국민회의 투쟁목적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반일운동의 구체적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의 지도적지침이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결성하신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중추적혁명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애국력량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옳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조선국민회에는 로동자, 농민, 교원, 학생, 군인(독립군), 상인, 종교인, 수공업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다 망라되여있었으며 그 조직은 국내는 물론 중국의 베이징, 상해, 길림, 무송, 림강, 장백, 류하, 판전, 단동, 화전, 흥경 등 외국에까지 널리 뻗어있었다.

이렇듯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20세기 초엽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삼천리강토에 민족자주의 기치가 힘있게 나붓기게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고결한 한생을 바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한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무산혁명에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신것이다.

시위를 하고 만세만 불러서는 침략자들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3.1인민봉기의 피의 교훈은 시대앞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줄 옳바른 방략을 제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실태와 력사적교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기초하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8(1919)년 7월 중순 청수동회의를 소집하시고 무산혁명의 필연성을 론증하시였다.

그후 8월 선생님께서는 력사적인 환전회의에서 무장을 들고 일제와 싸워 나라를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세상을 세울데 대한 무산혁명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강도 일제와는 오직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

이런 무쌍한 신조를 지니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여 무산혁명의 방략을 내놓으심으로써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이것은 오직 새것에 대한 지향과 높은 혁신적안목을 지니신 김형직선생님께서만 내리실수 있는 대결단이였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자력으로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시고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의 길로 방향을 전환시킴으로써 반만년의 민족사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력사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것은 아드님을 열렬한 애국자로,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심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밝은 전도를 열어놓으신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과 인민, 겨레와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열렬한 애국자, 견결한 혁명가, 천리혜안의 예지와 령활한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을 지닌 탁월한 령도자로 키우시였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 겨레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민족사적인 공적으로 된다.

아버님으로부터 넘겨받으신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과 더불어 두자루의 권총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과 리념을 깊이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아버님의 원대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원리를 밝히시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혁명투쟁의 전기간 그것을 일관하게 전지하여오시였다.

일찌기 총대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총대를 앞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선군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새벽길에서 놓이주시였던 지원의 뜻 어린 민족자주의 기치는 오늘 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과 더불어 우리 혁명의 총대력사에서 귀중한 유산으로 되였다.

탁월하고 비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는 천하제일명장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기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불후의 명작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심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일권

국제김일성상수여식

로씨야에서 진행

국제김일성상을 로씨야의 자브뜨라신문사 책임주필 알렉싼드르 안드레예비치 쁘로하노브에게 수여하는 행사가 7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행사장정면에 모셔져있었다.

행사에는 로씨야대통령고문, 오룔주장판, 중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부대표, 이즈보르스크구락부 1부위원장, 리페라뚜르나야 가제따신문사 책임주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조선, 몽골과장, 로씨야련방무력이전 륙군부총사령관 등 정계, 사회계, 군부 인사들과 국제김일성상리사회 리사들 그리고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행사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행사에서는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결정이 랑독되고 상장과 메달, 기념품이 쁘로하노브에게 수여되였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쁘로하노브는 국제김일성상을 수여받은 기쁨을 피력하면서 상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로부터 직접 수여받는 느낌이 들어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에 대해 언급하고 김일성동지는 진정 조선뿐아니라 세계력사에 빛나는 지유를 아로새기신 태양과도 같은분이시다, 그이께서 제시여 조선은 강대한 나라로 전변되고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이 있기에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남부수단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쥬 바

남부수단공화국 대통령

쌀바 키이르 마야르디트각하

나는 남부수단독립 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7월 9일 평 양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본질적특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본질적특징과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한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는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입니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을 동반하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위업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건설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맞게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을 일떠세울뿐아니라 문명강국건설도 힘있게 내밀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전진시켜오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이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이다.

해당 나라의 발전수준은 중요하게 문화의 발전수준에 의해서도 규제된다.

사회주의문화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문화,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보장된 문화이다.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가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찬란히 꽃펴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끊임없이 개화발전하는 나라가 참다운 의미에서의 문명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언제 가도 문명강국을 건설할수 없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사회가 낡고 뒤떨어진 부르죠아반동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인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문화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부르죠아문화의 특징은 비인간적인 착취사회를 합리화하고 미화분식하며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기형화시키는 반인민적인 문화, 착취와 략탈, 부위도식을 조장시키고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탈, 인신매매를 비롯한 온갖 사회악을 낳는 문화, 매음매덕과 부화방탕한 생활을 류포시켜 사람들을 동물적생활에로 이끌어가는 변태적인 문화라는데 있다. 이러한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는 불피고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인 인민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 인류문명의 전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도, 전반적무상치료제도, 어린이보육교양제도 등 선진적인 문화제도가 수립된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인류의 문화발전을 주도해나갈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나라이라는데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의 근본특징이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이다.

나라의 문명수준은 해당 사회에서 살고있는 인민들의 창조력과 문화수준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창조력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해나갈수 있는 인민대중의 힘을 말한다.

과학기술지식은 창조력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산지식을 체득하여야 사상문화적재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조하며 문명한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다. 깊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적재부의 창조가 누가 인재를 더 많이 쥐고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고있는 오늘 전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지식, 문화지식을 소유한 인재로 준비시키는것은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힘으로 된다.

건장한 체력은 창조적인 활동의 육체적담보이다. 아무리 지식수준이 높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슬기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수 없다. 보건사업의 개선강화와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통하여 전체 인민이 건장한 체력을 지닐 때 비상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는 힘은 전체 인민이 풍부한 과학기술지식과 함께 건장한 체력을 소유하는데 있다.

사람들의 문화수준문제는 문화정서수준, 도덕수준, 생활양식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설뿐아니라 문화수준이 높아야 참다운 문화의 향유자로 될수 있다. 사람들이 문화정서적소양이 높지 못하고 도덕품성이 저렬하며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생활양식을 확립하지 못하면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할수도, 그것을 향유할수도 없다. 문화수준의 높이이자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정신적높이이다.

창조력이 높고 문화수준이 훌륭한 인민들에 의하여 세상에 부럼없는 문명이 창조되고 그것을 인민들자신이 향유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문명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김용일

생산수자보다 로동자들의 생활부터

중정의 200일전투에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들에는 비결이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가슴뜨거운 이야기에서 찾으려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입니다.》

어느해 11월이였다.

한 회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석탄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킬 방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 방도의 하나가 탄광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방공급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방어전투의 경험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며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적들의 포탄과 폭탄에 산의 높이마저 낮아졌다는 1211고지방어전투는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들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였다.

적들은 군사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1211고지를 빼앗으려고 방대한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공격해왔다.

일부 군사지휘관들은 적들의 무력에 대처할수 있도록 최고사령부에 제기하여 예비대를 받자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최현동무에게 전화로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적들과 간고한 싸움을 벌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콩나물을 많이 길러먹지 않았는가, 콩을 보내주겠으니 전투원들에게 콩나물을 길러 따끈한 콩나물국도 끓여먹이고 두부와 비지도 만들어먹이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싸움의 그날을 최고하시는듯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일군들의 눈앞에는 불타는 고지의 전호가에서 따끈한 콩나물국을 앞에 놓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목메여하며 최후결전을 다짐하던 그날의 전투원들의 모습이 뜨겁게 어려왔다.

잠동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리하여 최소한 1개 사단이라도 예비대를 받지 않고서는 지켜내기 곤난하다고 하던 1211고지를 단 한명의 예비대도 받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깃든 그 콩나물을 어찌 수천수만의 포탄과 대포, 땅크에 비길수 있으랴!

정녕 그 위대한 사랑은 몇개의 사단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력한 무기였고 1211고지를 지켜내게 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였다.

일군들은 석탄생산수자에만 매달리면서 탄부들의 생활부터 먼저 돌보지 못한 자신들을 질책하며 탄부들의 참된 주부,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석탄생산수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탄부들의 생활부터 돌볼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일관한 사업원칙이고 사업방법이였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

이것이 200일전투장들에 세차게 나래치는 혁신의 비결, 승리의 비결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철혁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 공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공연이 8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김영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군들, 점견자, 공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주체적인 군사전략과 전법, 독창적인 령군술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대규모적인 《신공세》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불비쏟아지는 최전선에까지 나오시여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기도를 분쇄해버리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전쟁승리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출연자들은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위험한 화선강행군길을 헤쳐가시면서도 한 인민군전사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해 육친의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있어 전승의 7.27을 맞이할수 있었음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니지 못한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령군술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승리의 기치이시라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촌토를 영예롭게 사수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 대중적영웅주의와 희생성,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백전백승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준 혁명연극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전승업적, 선군혁명업적을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로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을 힘있게 떨치자

영웅청년신화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선군조선의 수백만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와 비상한 각오, 불같은 열정을 안고 충정의 200일전투와 더불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시대의 력사적진군에서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청춘의 기백이자 조국의 기상이고 청년대오의 천진속도이자 백두산대국의 힘찬 진군이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당 제7차대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모든 청년들이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대오의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우선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남포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신문 《청년전위》를 비롯한 출판물들에 실리는 교양기사들을 록음편집물로 만들어 교양사업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작전하고 실속있게 내밀어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의 실효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지난 6월 14일 천리마시대 선구자들의 투쟁자료들을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들에 내려보내주어 청년동맹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이 전투장들에서 4만여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설선전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함경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철도성, 문화성을 비롯한 각급 단위 청년동맹조직들에서도 청년들모두를 우리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의 제일체현자들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기 위한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드세차게 들이대고있다.

들끓는 대고조전투장은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 만리마속도창조의 선구자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치게 하는 투쟁의 활무대이다.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중앙이 그어준 승리의 화살표를 따라 초음속비행기속도로 질풍같이 돌진해나갈 수백만 청년들의 억센 기상이 그대로 시대를 뒤흔드는 기적과 혁신, 미풍과 미덕들로 이어지고있다.

평안북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6월 25일까지 수백t의 물고기를 잡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한 룡암포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처녀어로공들과 생산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녕변견직공장 청년전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도안의 청년들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을 련이어 거두게 하고있다.

평안남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200일전투 첫날부터 작업조진이 불리한 막장을 스스로 맡고 철야전투를 벌리고있는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회안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도안의 모든 청년돌격대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전으로 200일전투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라선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청년판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조직의 지도밑에 시안의 주요공장, 기업소들에 11개의 청년작업반을 조직하고 청년작업반원들이 생산활동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으며 철도성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객차바퀴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과고철을 청년들이 맡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과고철을 수집하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조직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21호림업련합기업소 압록강류벌사업소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전투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통나무의 운반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청년동맹초급조직들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 과정에 동흥작업소 초급단체에서 3—4명이 맡아하던 떼몰이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1 000여㎥의 통나무를 운반한 경험이 적극 일반화됨으로써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통나무의 운반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청년동맹초급조직들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 과정에 동흥작업소 초급단체에서 3—4명이 맡아하던 떼몰이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1 000여㎥의 통나무를 운반한 경험이 적극 일반화됨으로써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제낌으로써 로보수시간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보이라대보수를 위한 어렵고 힘든 선행작업을 청년들이 맡아 해제낌것을 발기하고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20여명의 청년들로 200여t의 연재 및 오물처리를 끝냄으로써 6월말까지 계획하였던 1호보이라대보수를 10여일간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단천세멘트공장, 원산청년발전소, 사리원방직공장, 함흥견직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이렇듯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발휘되고있는 청년동맹조직들의 투쟁기풍은 청년들모두를 시대의 영웅, 만리마선구자들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일대 과시로 된다.

윤 명 철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가 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협동벌에 나래치는 비약이 열풍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에서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각급 농근맹조직들에서는 당 띤한 영농전투에로 일군들과 동맹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협동벌마다에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 모내기와 강냉이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전국의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호소하는 재령군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지난 4월 삼지강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앙양된 동맹원들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하여 방송정론 《우리 당마크와 쌀》, 구호해설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통장혼을 부르라!》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사업자료들을 산하조직들에 내려보내주었다. 한편 각급 농근맹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 몸을 잠그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전개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황해남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군농근맹책임강사들과 리농근맹해설강사들의 정황선동경연을 영농전투현장에서 조직하여 정치사업이 화선식으로 힘차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평안북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수천명의 농근맹초급선전일군들이 수십만명의 동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과 이신작칙으로 그들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모내기를 끝내도록 하였다.

평안남도와 자강도, 함경남도의 농근맹일군들도 들끓는 전투현장들에서 동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 협동벌마다에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였다.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는 트락토르운전수들사이, 모내는기계운전공들사이, 부림소관리공들사이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지역별, 단위별, 단계별로 활발히 벌어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포전들마다에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하였다.

판산군, 안악군, 회천시, 안변군농근맹위원회들과 함주군 조양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초급농근맹위원회들에서는 전형단위를 옳게 정하고 그를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경쟁에 대한 판정 및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경쟁열의를 비상히 높여주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농근맹조직들이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200일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앙양된 분위기에 맞게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과시

각급 직맹조직들에서

당 제7차대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급 직맹조직들이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업동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생산자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새 력사를 펼친 당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지난 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조직해주신 금성뜨락또르공장, 대안친선유리공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사이의 사회주의경쟁, 인민경제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 단계별사회주의경쟁 등 집단적경쟁열풍으로 충정의 70일전투승리에 기여한 경험을 살리면서 경쟁조직과 지도를 개선해나가고있다.

각급 직맹조직들과 일군들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순천시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직맹일군들은 전투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도록 한 당의 의도를 해설해주고 직맹원들의 경쟁심을 발동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에 힘을 넣었다.

함경남도안의 직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경쟁도표게시, 전투속보발간, 혁신자소개선전 및 축하모임 등 선전선동수단과 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생산단위 직맹조직들이 앞장에 섰다.

연암갱목생산사업소 직맹초급선전일군 경제선동대원들은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대중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쟁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철길대들사이, 객화차대들사이, 기관차대들사이 경쟁평가망법과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경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철도성 직맹위원회와 궁정자료통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경쟁총화를 실속있게 하고있는 태천발전소 초급직맹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직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경쟁조직과 장악지도사업,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각급 직맹조직들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충정의 200일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파감히 전개하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는 200일전투가 시작되여 수십일간 천수백명의 직맹원들이 자기 교대를 마치고 직맹돌격대활동으로 보이라재 및 슬라크처리, 석탄하차 등을 진행하여 전력증산에 이바지하였다.

대중운동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열고 만리마기수의 영예를 떨쳐가는 직맹조직들과 직맹원들속에는 탄차배루보수를 위한 직맹조직들간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힘있게 내밀어 탄차의 정상가동에 기여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 막장장비 및 소공구전시회를 조직하여 수많은 장비와 소공구를 굴진소대, 채탄중대들에 보내준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 한교대를 더 하는 미풍을 발휘하여 배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직맹원들, 화차수리의 큰 몫을 맡아나선 철도성안의 수십개 객화차대직맹돌격대, 동발회수와 탄차밀기 등을 맡아해제낌으로써 증산에 큰 기여를 하고있는 득장청년탄광의 직맹원들과 돌격대활동을 잘하고있는 청천강화력발전소, 혜산청년광산의 직맹원들도 있다.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황해남도, 황해북도, 남포시안의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농기계수리지원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새 기준, 새 기록, 새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온 나라를 뒤덮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각급 직맹조직들의 사업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떨치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로단체조직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자기 조직의 특성에 맞게 부문과 지역, 단위별로 힘있게 벌려 어디에서나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에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각 도녀맹위원회일군들의 화상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의 긍정적소행이 통보되였으며 만리마속도창조에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참가자들은 당의 의도대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온 지나온 나날들을 긍지에 넘쳐 돌이켜보았다.

려명거리건설을 지원하는 녀맹돌격대활동을 비롯하여 각 도, 시, 군들에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돌격대활동이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로 활발히 벌어졌다.

무산과 김철, 황철과 검덕, 북창과, 순천 등 인민경제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우리 녀성들은 당의 품속에서 억세게 자라난 조선녀성들의 불굴의 기개와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녀맹돌격대활동과 함께 여러가지 대중운동들이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힘있게 벌어졌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 조직진행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맹렬히 벌어졌다.

산림복구전투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함주군녀맹위원회에서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전형단위를 정하고 그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군녀맹위원회에서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경쟁요강을 만들고 사회주의경쟁선포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초급녀맹조직들이 산림복구전투에 진심을 바쳐가는 애국녀성들의 소행자료들과 산림복구전투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단위들의 긍정적소행자료들을 적극 찾아 소개선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초급위원회, 초급단체, 녀맹원호상간 나무심기에 필요한 거름생산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져 많은 거름을 생산반출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애국림조성사업과 군모제양료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누에치기, 피마주씨생산사회주의경쟁이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 단계별로 힘있게 벌어져 녀맹조직들의 전투적기상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동맹안에 거리와 마을꾸리기경쟁, 가정꾸리기경쟁 등 다양한 형식의 대중운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발히 벌어졌다.

충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 시, 군녀맹조직들에서 벌리는 가두녀맹원들의 출근길환영과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이 울리였다.

70일전투기간 출근길환영과 경제선동을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여러차례 기쁨을 드린 평양시녀맹위원회에서는 경쟁요강을 작성하고 매주 월요일을 계기로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주요장소들에서 구역별출근길환영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평천구역과 보통강구역, 대동강구역과 동대원구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양시 녀맹조직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속에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녀맹조직들에서도 도의 특성에 맞게 수십개의 장소들에서 출근길환영과 경제선동을 보다 참신하고 기백있게 벌려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열의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화상회의를 통하여 모든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 녀맹돌격대활동과 여러가지 대중운동,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집단적경쟁열풍으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도 선군조선녀성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할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본사기자 최 영 길

자력자강의 바통을 신념으로 간직하면 불가능이 없다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위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쉼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크나큰 신심에 넘쳐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 총궐기, 총매진하고있다.

새로운 승리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그들모두의 가슴속에는 충정의 70일전투의 나날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가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 투쟁의 날과 날은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 승리의 철리를 뼈속깊이 새겨주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승리산의 바통은 굳건하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받아안던 그때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사적비앞에 숭엄히 섰다.

전화의 나날 인민군용사들이 미제침략자들에게 통쾌한 섬멸적타격을 안긴 뜻깊은 산이름을 《승리산》으로 지어주시고 몸소 기업소터전까지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 혁명과 건설의 년대기들마다에 이곳 로동계급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힘과 용기와 슬기를 천백배돋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호, 《자주》호, 《건설》호, 《금수산》호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CNC공작기계들이 들어찬 새로운 생산공정을 일떠세운 자랑찬 연혁이 누구에게나 긍지높게 되새겨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승리산의 자랑찬 바통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대대손손 굳건히 이어가리!

이런 애국충정의 맹세를 천백배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로 새형의 자동차를 개발할것을 한결같이 결의해나섰다.

그처럼 어려웠던 전후시기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맨주먹으로 40일만에 《승리58》형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내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오늘의 개발전투에서도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갈 이곳 로동계급의 애국열의가 전투장마다에 차넘치였다.

내각과 기계공업성의 적극적인 지지와 힘있는 방조밑에 최장일, 김군철, 김철웅, 리명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새형의 자동차설계와 제작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 연구사들을 비롯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련합기업소로 달려왔다.

비 약 의 원 동 력

절고 말처럼 쉽지 않았다. 현행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새형의 화물자동차를 개발하자니 적지 않은 난문제들이 제기되였다. 필요한 지구, 장비들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중요부분품과 해당 설비들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방도가 서지 않았다.

그러나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단 한가지 명백한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것이였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이 총발동된 가운데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지고 전투장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생산의 첫 릉정을 지켜선 금속모형직장에서의 형타제작전투, 종전같으면 웅근 한개 사업소적인 력량을 동원하여도 반년은 실히 걸려야 할 과제였다.

그이상 더는 앞당길수 없다는 보수주의, 패배주의를 불사르며 이곳 직장로동계급의 무쇠주먹들이 억세게 솟구치였다.

이렇게 자동차개발집단은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과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빛나는 승리산의 바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작전투에 총진입하였다.

원 동 력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그것도 단 석달동안에!

비록 겉모습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로동자들의 심장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펏펏하게 장식할 강렬한 지향으로 불타고있었다. 형타제작전투장은 말그대로 치렬한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변성국, 박영호동무들이 절단과 가공, 건조와 조립작업을 긴장하게 조직지휘할 때 주동호, 최문룡, 박영철, 정광익, 강운철동무들을 비롯한 고급기능공들이 맡겨진 기본형타제작과제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매일 두몫, 세몫씩 해제끼였다.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 수많은 종업원가족들과 명예당원들, 덕천시안의 전쟁로병들까지 모두 떨쳐나 격동적인 경제선동과 힘있는 로력지원, 지성어린 후방사업으로 전투원들의 사기를 백배, 천배로 북돋아주었다.

직장로동계급은 드디여 80일간의 돌격전끝에 120여종의 형타제작교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야말았다.

새형의 자동차개발은 두뇌전, 기술전이기 전에 사상전이였다. 자강력의 강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었으니 형단조직장과 전기직장, 공구직장과 주강직장의 로동자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프레스와 압축기, 기중기와 만능선반을 수리 및 개조하면서 개발전투에 박차를 가하였다. 만능각도조절기를 리용한 가공과 새로운 연신방법 등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련속 받아들여 종전보다 작업능률을 3배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책임적으로 보장해나갔다. 정밀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CNC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가공품의 정밀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현창언, 송철성, 김영덕, 한봉섭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115hp디젤기관실제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크랑크련결대기구와 윤활 및 랭각계통에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며 차체외형을 독특하고 경쾌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자력자강의 총진군대오에 선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도 고무제품성분분석 및 제작공정확립과 기계침탄 및 탄질화공정확립 등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국산화비중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어렵다던 파급기제작과제도 훌륭히 결속하였다.

드디여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새형의 자동차제작에 필요한 부분품 및 부속품제작과제를 100% 완수하였을 때 모두의 마음속에 용암마냥 뜨겁게 고여친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자력자강으로 백배해진 승리자들의 희열이였고 배짱이였다. 반드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적실천으로 화답해나선 순결한 마음들이였다.

새 싹 과 꿈

70일전투의 철야적진속에 날이 가고 달이 바뀌였다. 이 나날 자동차개발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자기들의 온넋과 육체를 깡그리 바쳐가며 승리의 그날을 하루하루 앞당겨왔다.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원수님의 노래를 목메여 부른 개발자들, 이들속에는 전투 전기간 어렵고 방대한 작업과제들을 모두 책임적으로 수행한 동무들도 있고 불리한 작업조건에서 애국의 뜨거운 열정을 다 바쳐 주물과 카공, 조립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동무들도 있다.

뜻밖의 급병으로 쓰러지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맡은 기대의 동음을 억척같이 지켜내고 참된 삶을 빛내인 장비직장의 보배선반공이였던 인인철동무, 거듭되는 파로를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며 어려운 기술과제와 CNC설비가동에 필요한 프로그람제작을 제때에 끝낸 김남일, 최리호, 박영천, 한철환동무들…

이렇듯 미덥고 자랑스러운 개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새형의 자동차조립을 전부 끝내고 시운전을 진행하는 날이 왔다.

4월 29일, 온 련합기업소와 련관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기대가 집중되는 속에 새형의 화물자동차가 고르로운 발동소리 드높이 제정된 구간에 대한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였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새형의 화물자동차개발에 완전성공한 이 격동적인 순간 전체 개발자들은 환호성을 터치며 서로서로 얼싸안았다.

이렇게 승리산사람들은 새싹을 키워냈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 자동차공업발전사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갈 귀중한 새싹이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이들이 제작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 전시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거듭 만족해하시며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보내도록 하시는 최상의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을 뼈에 새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승리산사람들에게는 꿈이 있다. 원대한 포부와 리상이 있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1만대자동차생산고지를 점령하고 영웅조선의 본때와 기상을 만방에 과시하였던것처럼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자동차공업발전의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리!

이들의 꿈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지금 이곳 로동계급은 새형의 화물자동차 2호생산도 성과적으로 끝내고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제련생산을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의 생산을 수백, 수천대로 늘여나갈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그렇다.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는 위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승리산사람들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본사기자 정 순 성

세기를 이어 천만군민을 혁명승리에로 부른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어린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새기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22돐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세기의 언덕을 넘어 위대한 영생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7(1918)년에 지으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이다.

근 한세기전에 태여난 노래이지만 금방 창작된 새 노래와도 같이 느껴지고 어디서나, 누구나 즐겨부르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되고있다. 마치도 우리 세대를 위해서 지은 노래처럼 이 노래의 사상과 정신은 우리의 투쟁과 생활속에 공기처럼, 생명수처럼 깊이 스며들고있다.

인류음악사에는 인간의 신념과 의지, 불굴의 사상정신을 노래한 가요들이 있지만 이 노래처럼 한 나라, 한 민족의 위대한 혁명정신을 대표하는 그렇듯 거대한 무게를 가진 노래,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장중한 울림을 안고 대를 이어 혁명을 추동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가요는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우리 생활에 아름다운 행복이 꽃펴나고 문명의 향기가 파도칠수록 왜 우리 세대의 심장속에는 대를 이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사상과 정신이 뜨겁게 고동쳐야 하는가.

혁명의 길은 그 누구나 쉽사리 갈수 있는 력사의 한한대로가 아니다. 인민의 리상과 꿈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모진 고난과 시련, 희생을 동반하는 가장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초행길이다.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 혁명가가 얼마나 강해야 하며 어떻게 끝까지 싸워야 하는가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의 주제가와도 같은 이 노래로 가르쳐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위대한 혁명정신으로 대를 이어 끝까지 혁명에로 부르는 영원한 투쟁의 행진곡이다.

노래의 심오한 뜻을 깊이 새기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처럼,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 조국을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처럼 나도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변함없이 가려고 합니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연단에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한구절한구절을 신념의 글발로 심장에 새겨주시고 주체혁명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세계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력사의 새벽길에 새겨진 숭고한 사상과 정신은 혁명의 먼길을 대를 이어 꿋꿋이 걸어가게 하는 신념의 피줄기이다.

주체7(1918)년 평양감옥에서 옥중투쟁을 벌리시던 나날에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산혁명의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출옥후 자신의 한몸은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굴함없이 싸워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의 큰뜻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기에 앞서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진다고 해도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으시였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강의하고 슬기롭고 정의로운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조국강산을 뒤덮었던 소나무가 수난의 년륜을 암제의 쇠사슬마냥 두텁게 휘어감고 신음하던 그때 과연 어느분이 조선의 양춘을 불러 한몸을 뜨겁게 불태우시였던가.

조선이 언제 독립될지 기약할수 없었던 암담한 시기에 시련의 눈서리를 이겨내고 새봄을 부르는 소나무의 억센 기상인양 력사의 초행길을 강인하게 헤쳐가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곧 혁명의 길에서 천신만고를 다 겪는다고 해도 혁명절개를 굽히지 않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만경대혁명가문의 불굴의 기개였다.

바로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고 하여도 굴함없이 싸우는 백절불굴의 의지를 지니시고 시련의 찬바람을 맞받아 쉬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가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신념의 메아리였고 그 불같은 한생의 행진곡과도 같았다.

조선민족의 운명이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한편의 노래로 서슬푸른 압제의 총칼로도 빼앗을수 없고 정복할수 없는 민족자주정신과 굴함없는 자주독립의 의지를 전체 조선민족의 심장속에 뿌리깊이 심어주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원천을 마련해주신것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창작과 함께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의 첫길을 낸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만이 천신만고로 한치한치 열어놓은 혁명의 먼길의 참다운 의미와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룩해야 할 혁명승리의 진가에 대하여 후손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수 있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는 조선혁명을 기어이 완수하는 길에서 우리 세대가 대를 이어 영원히 간직해야 할 혁명의 명맥과 혁명가의 신념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정신이 뿌리깊이 체현되여있다.

혁명의 길에는 시련이 많다. 그 시련을 신념으로 이겨내야 하는것이 혁명이다.

대를 이어야 끝까지 목적을 이룰수 있고 혁명절개를 굽히지 말아야 시련을 이겨낼수 있으며 신념을 지켜야 승리할수 있다.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피롭받다가》,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이 시어들은 혁명가가 어떤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멀고도 험한 혁명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주고있다.

우리 수령님 14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 품으시고 떠나시였던 길, 조국해방이라는 혁명의 큰뜻을 성취하시는 길에서 부모님들을 다 잃으시고 20년만에 홀로 만경대고향집에 들어서신 수령님의 그날의 심정이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라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비장한 가사와 선률속에 가슴사무치게 어려온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혁명의 피줄기, 그 명맥이 무엇으로 이어지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백전백승만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정신이 무엇인가를 뼈와 살에 새아박아주는 신념의 글발이다.

조선혁명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다.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온것이 우리 혁명이고 시련과 고난의 모진 눈서리, 찬바람을 두렵없이 이겨내면서 승리하여온것이 조선혁명이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만경대가문의 지원의 뜻이 어려있는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항일대전의 총성을 울리시여 선군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였고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백전백승의 아들로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총대를 혁명의 제주봉으로 억세게 틀어쥐시고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였으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시였다.

오늘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이 어린 혁명의 총대를 선군혁명의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영원한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신다.

혁명의 대가 그렇듯 꿋꿋이 이어진 혁명이 력사에 과연 있어본적이 있었던가.

대를 이어야 혁명이며 대가 끊기면 혁명의 명맥이 끊긴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하며 그 줄기찬 명맥은 백절불굴의 신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고귀한 철리를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의 감정이 절절하게 흐르는 선률속에 새겨주는 여기에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대를 이어 혁명에로 부르는 최후승리의 진군가로 되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조선혁명에 관통되여있는 민족자주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사상의 시원이라고 하시면서 한편의 노래가 조선혁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그 특출한 력사적지위와 사상예술적 감화력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사상과 정신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혁명이다. 혁명은 그자체가 간고하고 험난한 력사의 생눈길이지만 조선혁명은 그 간고성과 특수성으로부터 름에 없는 고난과 시련을 헤쳐야 했다. 이 모든 혁명의 난국을 과감히 뚫고나갈수 있게 하는 힘은 혁명정신의 강의성이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혁명가요들을 부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불사신처럼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포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강적과 맞서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며 끝끝내 조국해방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결전의 길로》를 부르며 시련의 불바다를 헤쳤고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쳐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그 어떤 만난고초를 겪는다고 해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끝까지 가고 갈 천만군민의 신념이 《동지애의 노래》, 《신심드높이 가리라》, 《전사의 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같은 굴함없는 혁명정신의 메아리로 울려퍼졌다. 사회주의수호전의 보검인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을 창조한 우리 인민이 오늘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라는 새 세기의 혁명가요와 더불어 전인민적인 영웅적투쟁의 서사시를 엮으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모든 강의한 혁명신념의 드놀지 않는 초석이 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영원한 지침으로 되는 사상정신적바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담고있는 사상과 정신이다.

이 위대한 사상과 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쳐물리치는 영웅신화를 창조할수 있었으며 력사의 물굽을 파감히 뚫고헤치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할수 있었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한편의 노래이기 전에 총대로 개척된 조선혁명을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김형직선생님의 영원한 심장의 당부가 있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혁명선렬들의 피끓는 신념의 목소리가 응축된 위대한 혁명정신의 교과서이며 한순간을 살아도, 두번다시 태여난대도 영원히 우리 당따라 혁명의 한길을 가고가려는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다.

주체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중대한 력사적시기가 도래한 오늘 천만군민은 성스러운 백두의 대업을 기어이 성취하기 위한 총공격전, 총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총공격전, 총결사전, 이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만난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가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또 하나의 초행길이며 혁명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건 적들과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이다.

지금이야말로 자주의 보검인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력사의 준령을 파감히 헤쳐갈 백절불굴의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여야 하며 누구나 천만배로 강해져야 한다.

인민의 자주적인 리상과 꿈은 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고 하여도 불사신처럼 굴함없이 대를 이어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할수 있다는 혁명승리의 철리, 자주적운명개척의 심오한 진리를 새겨주는 여기에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가지는 거대한 시대적의의와 불멸의 가치가 있다.

이 노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심장속에 삶과 투쟁의 영원한 좌우명을 새겨주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신념의 천만리길을 이어 이 땅우에 기어이 최후승리의 양춘을 불러오는 수천수만의 《남산의 푸른 소나무》들을 키워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념원하시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길에서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며 시련의 나날에나 행복한 나날에나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충정의 일편단심을 변치 않는 사람들, 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고 하여도 불사신처럼 굴함없이 싸워 당이 준 혁명과업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마는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사들…

이들이 바로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오늘의 불굴의 투사들이다.

혁명가들이 한생토록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정신이 집약되여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들, 백절불굴의 신념의 인간들을 끊임없이 키워내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참으로 이 노래는 우리가 한생토록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정신이 집약되여있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이다.

혁명가요의 생활력은 그것이 력사의 한세대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고무추동하는 혁명승리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된다는데 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같은 고귀한 정신적재보를 가지고있는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주체혁명위업의 명맥, 신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주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리 수 정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9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태양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뜻깊은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대히 개최하여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나가려는 온 겨레의 의지와 열망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련석회의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개최를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여 사업을 전개하고있다.

북측준비위원회 성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차승수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최진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의장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이밖에 성, 중앙기관과 우당, 근로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 각 부문에서 선출된 50여명이 위원으로 사업하고있다.

북측준비위원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위업실현에서 획기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에 맞게 앞으로 지역별준비위원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속히 구성하며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민족대회합을 성대히 개최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다.

주체105(2016)년 7월 9일 평 양

200일전투의 앞장에 선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고있다.
—단천제련소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강바닥파기와 제방쌓기를 하여 부침땅이 매몰되거나 류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 총궐기해나선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장마철피해막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6월말까지 계획한 일들을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장마철피해막이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큰물피해방지를 위한 련합지휘부를 조직하여 큰물피해를 입을수 있는 대상들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6월말까지 보수공사를 끝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협의회를 여러차례 조직하고 장마철전으로 계획된 대상들에 대한 보수를 책임적으로 끝내도록 하는것과 함께 많은 량의 세멘트와 연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

그리고 직접 정주시에 나가 마포갑문보수실태를 료해하고 장마철전으로 끝낼수 있게 세멘트와 연유, 철관 등 자재들을 긴급히 해결해주게 하였다.

이어 신의주시 연하지구에 있는 오목천제방공사정형을 알아보고 도급기관, 기업소들과 굴착기를 비롯한 봉전설비들을 동원하여 6월 30일까지 계획된 제방성토공사를 끝낼수 있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도적으로 180여㎞의 중소하천바닥파기와 수백리에 달하는 환개울길가시기를 6월 25일까지 일정계획보다 5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저수지들에 대한 성토공사와 무넘이언제콩크리트타일공사, 장석공사, 수문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진행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18개소에 20여㎞의 해안방조제성토공사와 수천㎥의 장석공사, 수십㎞의 받을물길과 방대한 배수로가시기를 6월 30일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

장마철피해막이전투에서는 정주시와 운산군이 모범을 보이였다.

정주시당위원회에서는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시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해안제방과 강하천보수공사를 전격적으로 내밀었다. 그리하여 해안방조제공사를 기한전에 결속하였으며 20여㎞에 대한 강하천보수공사도 기한전에 끝냈다.

운산군에서는 군급기관, 공장, 기업소로력과 여러대의 굴착기와 유압식삽차, 중량급화물자동차들을 동원하여 수십만㎥의 강바닥을 파내여 구룡강제방도로를 번듯하게 닦고 9 000㎥의 장석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의주시와 염주군을 비롯한 도의 모든 시, 군들에서도 장마철피해막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계획하였던 보수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필요한 대책을 따라세우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이 땅의 천만어머니들은 박근혜패당의 반인륜적 특대형범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우리의 소중한 딸들이 희세의 패륜마녀인 박근혜의 정치적희생물이 되여 강제유인랍치된지도 벌써 석달이 되였다.

이 시각도 피해자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있다.

피를 주고 정을 주고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며 나라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나라고 기원해온 그 딸들이 하루속히 달려와 안길 시각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는 우리 어머니들이다.

백주에 우리 처녀들을 한두명도 아니고 10여명이나 강제로 끌어가 억류해놓고 부모자식간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생리별을 강요한 박근혜패당의 반인륜적만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있으며 이를 단죄하고 조속한 송환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년은 괴뢰정보원깡패들을 내몰아 꽃같은 우리 처녀들을 마귀의 소굴에 영영 가두어놓고 그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짜내여 동족대결에 악용해먹으려고 미친듯이 발광하고있다.

도적질한 물건 감추듯 우리 처녀들을 외부와 완전히 격리시켜놓고 철저한 보도관제를 실시하면서 그 무슨 《자유의사》니,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호》니, 《국제관례》니 하고 어거지떼를 쓰는가 하면 딸자식을 만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부모들을 향해서는 뻔뻔스럽게도 《가족들을 생각해서 신상을 공개할수 없다.》는 등이 닿지 않는 망발을 줴쳐대고있는 박근혜이다.

엄마전에는 피해자가족들을 대변하여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벌리는 진보적변호사들의 응당한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갖은 위협공갈을 다하고있다.

지금 괴뢰패당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목숨으로 항거해나서는 우리 처녀들에게 비렬하게도 허위로 얼룩진 모략적인 동영상까지 날조하여 보여주며 순진한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어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깊어가는 분렬의 통한도 가실 길이 없는데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랍치하여 강제억류해놓고 혈육들의 생리별을 강요해나서고있는 박근혜야말로 민족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으며 겨레의 피눈물로 명줄을 이어가는 천하의 불악귀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만인이 공노하는 박근혜의 치떨리는 반인륜적악행과 만고죄악을 이 땅의 모든 녀성들과 어머니들의 신성한 이름으로 다시금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이미 세상에 명백히 드러난바와 같이 10여명이나 되는 우리 처녀들이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된것은 전적으로 반인민적통치로 민심의 배격을 받고있는 박근혜패당이 경각에 이른 제 숨통을 틔여보려고 꾸며낸 잔인무도한 《북풍》모략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궤책도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을 되돌릴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번 집단유인랍치사건은 박근혜의 목에 걸린 통가시가 되여 그 더러운 림종을 재촉하고있다.

이제 우리 처녀들을 세상앞에 내놓으면 박근혜와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랍치만행과 남조선에 끌려간 뒤 감행한 《귀순》책동의 진상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여있다.

때문에 그 입을 틀어막느라고 비지땀을 흘리며 오늘까지 시간을 끌어왔고 저들의 흉악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우리 처녀들을 괴뢰정보원의 칠흑같은 담장안에 영영 가두어두려 획책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대명천지에 이런 천하의 날강도행위가 용납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오산은 없다.

세계적으로 유인랍치만행은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테로행위의 하나로 규탄받고있으며 그 주범들은 인류공동의 원쑤로 되고있다.

지금 박근혜년이 우리 처녀들의 신분을 공개하고 귀환시키라는 내외의 비말치는 항의에 《신변이 로출된 상태에서 테로대상이 될수 있다.》느니, 《적법한 보호》니 하고 떠들지만 이것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저들의 죄악을 감추어보려는 생억지에 불과하다.

그 궤변대로 유인랍치만행이 《적법》이고 강제억류가 《보호》라면 남조선이야말로 인간의 생명도, 혈연의 정도 모르고 가정의 안정과 초보적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천하의 반인륜지대, 강도의 소굴, 비인간적인 범죄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적법하게 국제관례대로 한다면 추악한 정치적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무고한 10여명의 처녀들을 조국과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백주에 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간 특대형유괴만행부터 관결하여야 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 없게 가로막아나서는 인권대죄악의 주범들부터 교수대에 매달아야 마땅하다.

무릇 가장 뜨겁고 깨끗하며 진실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들의 사랑이며 가장 뼈저리고 참을수 없는 아픔은 자식잃은 모성의 고통이라고 일러왔다.

제 새끼를 잃고 고통에 몸부림치다 못해 창자가 산산이 갈라져 숨이 진 어미원숭이에 대한 일화가 《단장의 아픔》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는것도 그때문이다.

하지만 새끼를 낳아보지도 키워보지도 못하고 모성애란 더더욱 알지도 못하는 살인마녀가 금수도 낯을 붉힐 반인륜적참극을 벽첫이 벌려놓고 패악을 즐기고있으니 박근혜야말로 살려두면 둘수록 민족의 불행과 재난만이 가중되는 특등재앙거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박근혜년이 제 살길을 열어보자고 10여명이나 되는 우리 처녀들을 희생물로 삼았지만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눈에는 피가 흐르기 마련이다.

승냥이의 아가리에 물려 사경에 처한 자식을 그냥 두고만 볼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 처녀들을 백주에 랍치하여 남조선에 가두어놓고 반공화국대결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깡패무리들에게 엄숙히 경고한바 있다.

부모들의 품에서 사랑하는 딸자식들을 영영 떼여놓으려고 발악하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우리 녀성들의 분노와 원성은 하늘끝에 닿았다.

저지른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처럼 계속 간교한 시간끌기로 제년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워보려 한다면 더욱더 참혹한 징벌의 순간이 앞당겨질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무자비한 징벌과 보복으로써 천륜을 짓밟고 혈육의 정을 유린하며 동족대결을 격화시킨자 어떤 종말을 맞게 될것인지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죽어서도 저주받을 만고죄악의 후과가 두렵거든 박근혜는 우리 녀성들앞에, 이 땅의 어머니들앞에 당장 석고대죄하고 소중한 우리의 딸자식들을 지체없이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주체105(2016)년 7월 9일 평 양

장마철피해막이에 력량을 집중

평 안 북 도 에 서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신종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향기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

연 탄 군 을 돌 아 보 고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소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선 세대를 이어가며 그리도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는것인가.

어찌하여 꿈많은 우리의 새 세대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조국보위초소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는것이며 우리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온종일 일하고도 성차지 않아 한밤을 새우며 미래를 설계하고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동음을 련이어 일으켜가고있는것인가.

만리마의 속도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가는 조국의 자랑찬 모습과 더불어 그에 대해 말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산골군인민들의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생활을 통해 이야기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가장 존엄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며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연탄군을 찾아 이 고장 사람들에게 군의 자랑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누구라없이 마음흐뭇해지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군에서는 지난 몇해째 자체의 원료로 생산한 맛있고 색갈고운 간장, 된장은 물론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된 질좋은 빨래비누를 군안의 주민들에게 매달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있다. 그리고 뜻깊은 기념일들을 맞으며 자체로 생산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군안의 세대들에 골고루 공급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른아침이면 시원한 김치를 비롯한 갖가지 부식물들을 손수레에 가득 실은 어느 단위의 봉사자들이 1년365일 쉬임없이 담당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친절히 봉사해주고있다.

군안의 공장들과 협동농장들에 자체의 온실을 지어놓은데 이어 군적인 온실까지 통이 크게 일떠세워 군안의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부루, 쑥갓, 배추 등을 먹게 되였다는 이야기도 그러하였지만 단나무를 풍토순화시켜 덕을 보고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척 즐겁게 하였다.

군안의 발전소들에 대한 관리운영을 잘해 읍지구는 물론 여러 리들에 자체로 생산한 전기도 흘러들어 누구나 일터에 나서면 혁신자가 되고 저녁이면 또 하루 보람찬 로동의 기쁨과 희열속에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린다는 연탄군사람들.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에 더 좋은 래일을 향해 줄달음치는 연탄군 인민들의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고있어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동행하던 군의 일군은 서두르지 않고서는 연탄군의 자랑을 해가 저물도록 다 말할수가 없었던듯 다음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었다.

일군을 따라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연탄군의 오늘을 말하면서 아이들의 행복에 넘친 생활을 스쳐지나보내는것은 산천경개를 노래함에 있어서 산을 노래하되 내를 잊어버리는것이나 같은것임을 절감하였다.

바라만 봐도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로고가 어려와 사람들의 눈굽을 적셔주는 사랑의 왕차, 그 왕차에 실리여온 맛좋고 영양가높은 콩우유를 수도의 아이들이 즐겁게 마시는 시간에 연탄군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의 학생들도 군식료공장과 농장들에서 만든 콩우유를 달게 들고있었다.

한고뿌의 콩우유, 그것은 별로 크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누리는 행복의 크나큰 무게로 해서였다.

세상 그 어디에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건강에 좋은 콩우유까지 매일 보장받으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에 비낀 밝은 웃음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는 례가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와 동행한 일군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에 군에서는 자체로 만든 스레트를 그 어느 단위에 앞서 군안의 10여개 학교들에 먼저 씌워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뜻깊은 올해에 군안의 학교교원들과 유치원교양원들이 국가망을 리용하여 과학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공사가 제기되었을 때 군안의 인민들은 우리 고향의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무엇을 주저하겠는가고 하면서 한사람같이 달라붙어 방대한 작업과제를 이틀만에 해제꼈다고 하였다.

하여 이제는 산골도 심심산골에 있는 문화고급중학교를 비롯한 군안의 학교들과 유치원들에도 도시부럽지 않은 교육조건과 환경이 꾸려져 이 고장 자녀들이 지식의 탑을 마음껏 쌓게 되였으니 어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글소리가 산천에 메아리치며 랑랑히 울려퍼지지 않을수 있으랴.

해마다 변모되는 교정의 모습과 더불어 더욱 높아가는 고향마을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와 글소리가 듣기 좋아 질러가도 될 길을 굳이 학교앞으로 에돌아간다는 연탄군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의 식솔로 화목하게 살며 일하는 이들의 유다른 정서를 가슴흐뭇이 안아보았다.

연탄군의 하많은 자랑을 어찌 에서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기쁨속에 들을수 있다 하랴.

연탄군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수년세월 해마다 군안의 주민들에 대한 보철의료봉사를 잘해 소문난 군이다. 그러한 군에서 최근 몇해동안에는 자체로 마련한 보철재료를 리용하여 다른 지방에서 일을 보러 오는 손님들에게도 의료봉사를 성의껏 해주고있다고 한다.

《연탄군에 도착하면…》 이렇게 서두를 떼며 마치도 제 고향이야기나 하듯 즐겨외우는 이웃군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느라면 사료판매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군에는 알곡부산물과 성장촉진제, 항생제를 섞어만든 토끼알먹이를 파는 사료판매소가 있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토끼알먹이 몇봉지면 토끼 한마리를 병없이 빨리 키울수 있다고 한다.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토끼의 증체률을 종전보다 높여 고기도 먹고 수입도 늘일수 있게 하는 토끼알먹이는 현재 다른 지방의 손님들도 즐겨찾는 연탄군의 인기상품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진정 그 어느 단위의 누구를 만나 물어보아도 누리는 삶이 좋아 얼굴 가득히 웃음을 머금고 속삭이는 연탄군의 자랑이야기.

자기의 힘으로 땅을 걸구어 원료를 마련하고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인민의 재부를 하나둘 늘여 끝없는 행복을 꽃피워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평화를 바라지 않는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정세는 날을 따라 엄혹해져도 우리 당의 선군정치로 더없이 높이 틔워온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자기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제손으로 창조의 재부를 마음껏 늘여가는 사람들.

원쑤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올해에도 연탄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높이 세운 상반년계획을 4월말까지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화학일용품공장에서는 4월 중순까지 년간 빨래비누생산계획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가구생산협동조합에서는 수입산 목삭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던 이불장, 찬장 등의 가구제품들을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100% 자체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인간의 참된 삶은 존엄에 있다고 하였다. 그 아무리 값진 상품이 산같이 쌓여있다고 해도 남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여 만든 제품, 남의 기호와 취미에 맞춰 만든 제품으로 누리는 물질문명의 향유를 어찌 참된 삶이라 할수 있겠는가.

취재마감에 이르러 만난 이곳 주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연탄군을 찾아 군적으로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이른아침 제일먼저 집을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군일군들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밤늦게 담당지구를 돌면서 어느 집의 불빛이 왜서 며칠째 꺼져있고 불은 켜있건만 왜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를 눈여겨 살핀다는 군의 일군들, 이른아침 집을 나서는 길로 담당지구를 다시금 돌면서 밤새 앓은 세대는 없었으며 물은 나왔는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는 군의 일군들, 그렇게 알게 된 내용들이 군당위원회의 해당 부서에 집중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세워지고 그에 따라 군인민병원과 군도시경영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이 현지로 달려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이 땅에서 태여나 누리는 삶의 긍지와 보람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사람모두가 부러워할 우리 인민의 참다운 존엄에 대하여.

세상을 둘러보면 인민은 온갖 물질적부의 창조자이면서도 오랜 세월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여 눈물속에 살아왔다.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찾기 위해 투쟁의 불을 지핀 때로부터 장구한 력사가 흘렀지만 지구상의 많은 인민들은 오늘도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그러고보면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을 비롯한 군안의 곳곳에서 스스럼없이 울려나온 연탄군의 자랑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단순히 군안의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의 가지가지 이야기로만 안겨오지 않았다.

그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을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과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송가였다.

비록 하는 일은 평범해도 누리는 인간의 존엄은 하늘에 닿은 사람들,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이 제힘으로 흥해잘뿐아니라 서로 돕고 이끌며 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 그 축도이기도 한 연탄군의 이야기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자랑찬 현실을 장, 절체계로 적는다 하면 어느 한 장의 한 절에 불과하다.

하기는 전국각지에서 전해오는 인민의 행복에 넘친 생활을 취재수첩에 모두 적어 소개한다 하면 그 얼마나 환희로운 내용들로 우리의 지면을 가득 채우게 될것인가.

생각만 해봐도 가슴이 벅차다.

묻건대 이런 나라, 이런 조국을 그 누가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고 목숨바쳐 지키지 않을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천만금을 준대도 아니 바꿀 우리의 운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 단 한순간이라도 그 품을 떠나면 살아도 죽은 목숨인 우리의 사회주의이기에 사람들 누구나가 세대를 이어가며 한목소리로 웨치는것이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이라고.

본사기자 방경한

탄력망종목의 첫 국제경기우승자들

국제체조련맹 2016년 이리띠스끼에 조리경기대회에서 이룩한 우리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국제탄력망경기에서의 첫 승전소식이 전해져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얼마전 까자흐스딴에서 진행된 국제체조련맹 2016년 이리띠스끼에 조리경기대회 탄력망경기에서 우리의 미더운 신진선수들은 자랑찬 경기성과를 거두었다.

탄력망종목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피끓는 심장에 새긴 우리 선수들은 종목의 발전추세를 잘 알고 하루빨리 세계패권자가 될 필승의 신심에 넘쳐 우리 식의 독특한 훈련방법들을 받아들이고 훈련열의를 고조시키면서 기술을 부단히 련마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급별 남, 녀 개인경기로 나뉘여 진행된 탄력망경기의 성인급에는 장일혁, 김주향선수들이, 청년급에는 김윤성, 박유정선수들이, 청소년급에는 김현아선수가 참가하였다. 제정된 규칙에 따라 규정운동과 선택운동을 다같이 수행해야 하는 예선경기가 모든 선수들의 기술수준을 가늠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경기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체육인답게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발휘하여 예선경기에서 모두가 순위권에 든 상태에서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년한이 오래고 기술수준도 높은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전적을 가진 여러 나라의 선수들보다 당당하게 앞자리를 차지하고 결승경기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에게 수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였다.

예선경기와 달리 결승경기는 높은 수준의 10개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선택운동으로 진행되였다. 소년급 개인경기부터 시작된 결승경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13살 난 김현아선수가 청소년급 녀자개인경기에서 동메달을 쟁취하여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이어 청년급 남자개인경기에서 김윤성선수가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게 되자 관람자들은 모두 일어나 열렬한 박수갈채로 경기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성인급 녀자개인경기에 출전한 김주향선수는 높은 조약에 의한 공간에서의 빠른 회전 등 매우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매 동작들을 정확히 련결시키면서 점수를 올려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까자흐스딴의 한 전문가는 탄력망을 시작한지 불과 몇년밖에 안되는 조선선수들이 벌써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당당한 우승자들로 된것이 놀랍다고 하면서 급속한 기술발전을 이룩한데 대해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보내여왔다. 특히 성인급은 물론 청년급, 청소년급의 나어린 선수들이 이룩한 경기성과를 놓고볼 때 조선의 탄력망종목발전전망이 확고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제경기들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할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첫 국제경기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는 충정의 200일전투와 더불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기어이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려는 우리 선수들의 정신력이 낳은 귀중한 열매이다.

이번 경기대회는 우리 감독, 선수들이 탄력망종목의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더 잘 알고 비약할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세계패권을 쥘수 있는 도약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게 한 의의깊은 계기였다.

본사기자 지혁철

민족고전 《무예도보통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기록유산으로 등록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 《무예도보통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기록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윁남에서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 제7차총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민족유산의 하나인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기록유산으로 등록할것을 결정하였다.

《무예도보통지》는 세계의 120여개 나라들에 널리 보급, 일반화된 태권도의 력사적뿌리인 우리 민족의 전통무술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한 군사관계의 옛 무술도서이다.

1790년 4월에 목판인쇄본으로 간행된 도서는 각종 권법과 칼, 창, 곤봉쓰기, 말타기 등 우리 나라의 전통무술동작들을 위주로 하면서 주변나라들의 무술동작들에 대해서도 그림과 해설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여러가지 무술동작을 섬세하게 표사한 그림들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가 그린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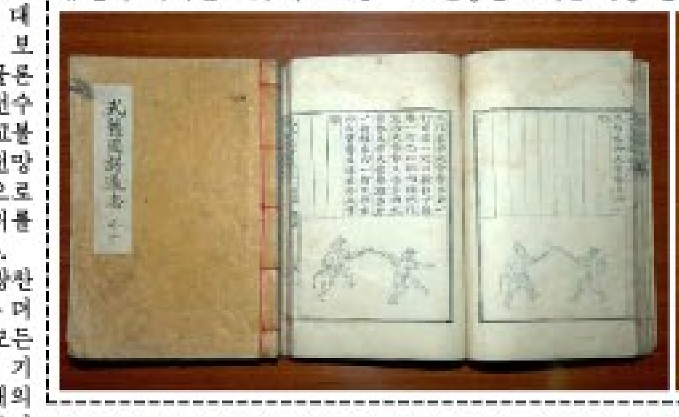
《무예도보통지》는 태권도의 시원인 우리 나라의 전통무술과 무술의 발상지로서 그 력사와 우수성을 자랑하고있는 동방의 무술을 연구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민족문화유산들을 모두 찾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주체41(1952)년에 평안남도에서 수집되여 국립중앙도서관(당시)에 기증되였다.

현재 《무예도보통지》는 인민대학습당에 보존되여 리용되고있다.

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을 보여주는 《무예도보통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소식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부를수록 새 힘이 솟는 노래

얼마전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과수밭비배관리를 제 기일에 끝내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작업속도를 보장하는데 큰 장애가 조성되였다. 이때 어느 한 작업반포전에서 노래가 울려퍼졌다. 하루일의 시작전에도, 작업의 쉴참에도 즐겨부르던 노래, 구절구절 되새길수록 영원한 태양이 빛나는 조국,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을 더해주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였다. 노래는 순간에 여러 작업반원들의 합창으로 번져졌다.

부를수록 새 힘이 솟는 노래와 함께, 헌신의 열정 다 바쳐 조국번영에 이바지할 드높은 신심에 넘쳐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그날 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로농통신원 주순화

산업건물건설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축가, 건설자들은 공장건물을 하나 건설하여도 그것이 사람들의 생산활동과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여야 하며 학교나 도서관, 극장, 영화관을 지어도 그것이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에서 쓸모있는것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산업건물들은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려나가도록 하는 거점이며 대를 이어 만복을 창조해나가게 하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산업건물을 우리 식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실용예술인 건축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주체성과 민족성을 잘 살리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관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하나의 생산공정을 꾸리고 하나의 생산건물을 건설하여도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인 생활정서와 미감을 깊이 연구하고 근로자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가장 편리하게 생산공정상요구에 따르는 생산건물의 용적평면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지와 가스, 열, 소음과 진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채광과 통풍, 온습도조건과 기술공정별무균화, 무진화실현을 비롯한 위생공학적인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건물의 내외부형성과 마감에서도 우리 인민의 현대적미감과 건물의 성격과 용도에 맞게 깨끗하고 보기 좋게 하면서도 지식경제시대의 산업건물로서의 특징과 면모가 충분히 살아나도록 건물의 마감재료와 색을 잘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공장들은 소음과 진동이 많고 마감겉면적이 매우 넓기때문에 타일이나 돌과 같은 무겁고 값비싼 재료를 쓰면 경영과정에 파손과 자금랑비현상이 많으므로 원가가 적으며 보기에도 좋은 외장재를 대상의 용도에 맞게 선택하고 색조화를 잘하여 마감하는것이 좋다.

또한 산업건물의 생산공정별 특성에 따르는 선진적인 구조도식과 구조해결방법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구조재료를 적용하며 건설의 공업화수준을 높이고 건설과 경영에서 자재와 자금, 로력을 극력 절약하며 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건물로 건설함으로써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활짝 꽃피워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김현철

자랑스러운 국보—오가산자연보호구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오가산과 그 일대를 포괄하는 자연보호구로서 량강도 김형직군과 자강도 화평군의 경계지대에 자리잡고있다.

오가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뜻깊은 혁명사적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새겨져있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보인 구호나무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가산자연보호구를 잘 보존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밀림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오가산자연보호구는 8년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그 면적이 2배이상으로 늘어나 현재 6 500정보에 달하고있다. 여기에는 수백정보의 원시림과 천수백종의 동식물자원, 많은 진귀한 천연기념물들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끌고있는 오가산원시림의 수목생육상태는 매우 좋으며 천년이상 자란 주목과 수백년 자란 피나무,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신갈나무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보기 드문 큰 나무들이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있다. 여기에 길이가 40m이상 되고 직경이 10㎝이상 되는 다래나무, 등칡 등 덩굴나무들이 감겨자라고있어 천연원시림의 울창한 모습을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온대성식물분포구와 아한대성식물분포구의 경계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독특한 자연경관을 이루고있다. 여기에는 잣나무, 전나무, 찰피나무, 자작나무 등 온대북부요소의 식물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누운측백나무, 만병초, 백산차, 땅두릅나무와 같은 한대성요소의 식물들과 조릿대, 나도파초일엽 등 온대남부요소의 식물들도 자라고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식물의 종구성이 다양하고 독특할뿐아니라 식물들이 무리를 지어 자라는 모습에서도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잣나무와 전나무군락은 해발높이 800~1 000m사이에 집중분포되여있으며 그우로는 분비나무와 가문비나무가 우세한 군락이 있고 그아래로는 신갈나무와 피나무가 우세한 군락이 있다.

그밖에 사시나무와 자작나무군락,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섞임군락이 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에는 산삼, 만삼, 참나물, 오미자나무를 비롯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식물들과 만년버섯, 느타리버섯, 자작나무혹버섯과 같은 식용 및 약용가치가 있는 버섯류 그리고 지의류와 이끼류도 많이 자라고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있고 자연지리적조건이 다양한것으로 하여 동물들의 생활환경에도 매우 유리하다. 범, 곰, 사향노루 등 짐승류와 꾀꼬리, 뻐꾸기, 쩍동새 등 새류 그리고 량서류, 파충류, 물고기류를 비롯한 동물들이 수백종이나 살고있으며 그 마리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

오가산자연보호구에는 여러 대상의 천연기념물들이 있다.

원시림이 집중되여있는 지역의 800정보가 천연기념물 《오가산원시림》으로 등록되여있다. 그밖에 1 100여년 자란 주목, 700여년 자란 피나무, 400여년 자란 전나무와 잣나무를 비롯하여 개별적나무들이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여 보존되고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이렇듯 오랜 형성력사와 다양하고 독특한 생물자원의 풍부성으로 하여 학술연구와 과학지식보급에서 매우 의의가 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보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에 의하여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오랜 력사적과정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고이 간직하여왔을뿐아니라 절세위인들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당의 올바른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에 그 내용이 보다 풍부화되고있다.

중앙식물원 연구소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관응철

누구나 알아야 할 우주상식

우주공간과 우주공학

우주공간은 지구대기권밖의 공간이다. 태양계안의 우주공간은 행성공간과 행성간공간으로 나눈다. 행성공간은 행성의 인력이 작용하는 범위 혹은 자기권, 대기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지구인력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반경이 지구중심으로부터 약 93만㎞이며 지자기마당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정하면 지구중심으로부터 약 6만 5 000㎞이다.

행성공간을 제외한 태양계의 행성들사이의 공간을 행성간공간이라고 하는데 반경은 태양으로부터 약 60억㎞이다.

정지궤도이하의 공간은 근지구공간이라고 한다. 근지구공간의 아래한계는 아직까지도 국제적인 정확한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면으로부터 100여㎞를 아래한계라고 본다. 태양계밖의 공간은 항성계(은하계)공간, 항성간공간으로 나눈다. 일련의 국제기구들에서는 지구와 달사이의 평균거리(약 38만 4 000㎞)와 같거나 그보다 더 먼 공간은 심우주공간이라고 한다.

우주공간과 우주공학이라는 용어는 매우 밀접한 련관을 가진다.

우주공학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포함하여 우주공간과 천체를 탐사, 개발 및 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공학적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우주기술 혹은 공간기술이라고도 한다.

우주공학은 우주비행리론을 실천에 적용하기 위해 인공지구위성과 운반로케트를 설계제작하여 발사하고 그것을 조종하며 관측결과들을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한 종합성이 강한 공학이다. 다시말하여 우주공학의 연구대상은 포괄범위가 매우 넓고 린접학문들사이의 련관성이 깊은것으로 하여 첨단과학의 종합체라고 볼수 있다.

우주공학연구는 투자가 방대하고 개발주기가 길지만 응용범위가 넓고 경제적효과와 리익이 크다.

오늘 우리의 우주과학기술부문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표대로 되고있으며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국가우주개발국 김혜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자기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는 학생소년들
—청진학생소년궁전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민족대단결위업의 전성기를 펼쳐주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으로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이 뜨겁게 젖어드는 그리움의 7월이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비분에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몸부림치고 하늘도 땅도 묵놓아울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22년이 되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겨레의 심장속에 더욱 차넘치고있다.

조국통일은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위대한 한생이였다. 하기에 지금 온 겨레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민족의 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하나로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되새겨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민족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여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열렬한 민족애와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고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해방직후 나라의 정세는 참으로 복잡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둘로 갈라놓는 비극을 가져왔다. 애국적민주력량의 사분오렬을 꾀하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도 극도에 달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이룩하신 민족단합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인 각 정당, 계층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애국력량의 결정적우세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수 있게 하는 현명하고 정당한 로선이였다.

주체35(1946)년 7월 평양에서는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가 열리였으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이로써 통일전선운동은 위력한 거점을 가지게 되였으며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조직적인 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해방후 처음으로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한 력사적인 민족적회합이였다.

사실 그때 련석회의를 조직하고 실현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민족통일전선운동에 구현하시여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애국애족이라는 공통된 리념으로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을 능히 단합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였다면 누구도 성사시킬수 없는것이였다.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민족단합의 리념에 공감된 수많은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이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용약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의 단합된 주체적력량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승리적기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집필하신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주체82(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온 세상에 장엄히 선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회의에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전 남에 있전 해외에 있전, 공산주의자이전 민족주의자이전, 무산자이전 유산자이전, 무신론자이전 유신론자이전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시한 통일강령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으로 엄숙히 공포하시였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령도의 나날들에는 범민족대회를 마련하시여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을 조국통일위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고 통일운동을 거족적인 애국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헌신과 로고도 깃들어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주체78(1989)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는 관문점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고 그후 북과 남, 해외 3자의 범민족대회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였다. 주체79(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마침내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되였다.

범민족대회는 주체37(1948)년에 있은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회합이였다.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키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력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운동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온 현실은 민족대단결위업의 길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튼튼한 밑천이다.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여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엄높은 민족으로 내세우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은 오늘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갈 때 삼천리강토우에는 머지않아 온 세계가 부러워 우러러보는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이 우뚝 일떠설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총련 도꾜도본부 집행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 진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총련 도꾜도본부 집행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가 3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황명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황명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고 총련 도꾜도본부 집행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본부판하 일군들과 열성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5대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애족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온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총련 중앙위원회 결정을 총련 도꾜조직이 앞장서 집행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새 단계에 들어선 애족애국운동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가며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져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며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에게 떨사부무하여 총련 도꾜조직을 동포들이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며 의탁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과 함께 3대애국과업수행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보고를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으로 조일연이 새로 선출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북과 남이 마주앉을 그날을 기다린다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성명 발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5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북의 제안은 남과 북, 해외의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8.15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는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남북사이 당국간 대화는 물론 민간교류마저 전면차단되고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되여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남북대결은 또 다른 민족적비극을 가져올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로부터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민간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발전을 이룩할것을 여러차례나 주장해왔다고 성명은 밝혔다. 남북이 더 이상의 대결을 중지하고 민족적인 대회합을 통해 통일의 활로를 열자는 북측의 제안을 거부할 리유가 없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청년학생들은 남과 북이 마주앉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으며 남북청년학생들의 교류가 하루빨리 이루어질것을 기대하고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가야 할 길은 하나뿐 민족대회합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호응하고 대화를 위해 전면에 나서는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무의미한 제재와 대결정책을 폐기하고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우리앞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결광신자의 부질없는 입방아질

괴뢰집권자가 반공화국대결의 앞장에서 우리를 걸고드는 대결악담을 쉴새없이 쏟아내고있다.

지난 4일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성공하지 못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북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대북대응태세를 확고히》 하라고 피대를 돋구었다. 한편 역도는 이날 《자유총련맹회장단》 떨거지들과 가진 오찬이라는데서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저들이 《정화를 위해 노력》했다느니, 《7.4공동성명이 잘 지켜지지 못한것이 안타깝다.》느니 하고 구역질나는 노죽까지 부렸다.

괴뢰역도의 망동은 대결몽유병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의 전략적지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시대적흐름도 보지 못하고 파산에 직면한 《대북압박》공조를 지탱해보려는 가련한 발버둥질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성공하지 못할것》이라고 또다시 악담질해댄것은 무지무식의 집중적발로이다.

적대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주체적병진로선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지금 동방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온갖 전횡을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쳐갈기며 지역과 세계정치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날로 공고해지고있다. 얼마전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는 우리 공화국의 주체적병진로선의 승리와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의 실패를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괴뢰역도는 이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아직도 가소로운 궤변을 내뱉으며 외세를 등대고 반공화국핵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이런 무지한 지능아는 세상에 괴뢰들밖에 없을것이다. 그렇게도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력마저 상실한 정치까막눈이니 이제는 미국상전도 기대를 걸지 않는 《대북압박》공조에 계속 미련을 품으면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이다.

박근혜역도로서는 백마저가는 반공화국《제재》소동을 저들이 앞장에서 어떻게 하나 지탱해보자는것인데 부질없는 헛공사일뿐이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나간다는것을 괴뢰들은 알아야 한다.

가판은 최세의 대결미치광이인 괴뢰집권자가 저들이 《정화를 위해 노력》했다느니 뭐니 하고 입방아질을 해댄것이다. 역도가 《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것은 쥐가 고간을 지켰다는것만큼이나 가소로운 수작이다.

괴뢰들이 한짓이란 외세를 등에 업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킨것뿐이다.

그때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활동을 걸고들며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여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한것이 과연 《정화를 위해 노력》한것인가.

지금 이 시각도 괴뢰호전광들은 미제침략군과 함께 우리의 핵심시설과피를 노린 북침불장난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계속 첨예화되고있다. 박근혜가 7.4공동성명까지 꺼들이며 제편에서 《안타깝다.》고 나발질한것은 그야말로 폭소를 자아낸다. 자주라는 말만 나와도 불맞은 노루처럼 덴겁하여 날뛰며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서슴없이 뒤집어엎은 《유신》독재자를 비롯한 력대 괴뢰통치배들의 반통일책동때문에 북남관계는 곡절많은 력사를 이어오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진대 박근혜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7.4공동성명이 잘 지켜지지 못한것이 안타깝다.》고 너스레를 떠는가.

괴뢰집권자의 망발은 민족공동의 귀중한 합의들을 짓밟은 저들의 반통일적인 죄악을 가리우고 대결망동에 대한 내외의 비난여론을 모면하며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비렬한 술책의 발로이다. 하지만 그따위 억지공사는 밝은 세상에서 절대로 통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시대와 겨레의 지향을 외면하며 한사코 대결의 길로 질주한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은정철

드러나는 대참사의 진상, 범죄자들의 최후발악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2년이 넘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각계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은 엄마전 서울에서 참사가 일어난지 800일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보장을 요구하는 통성투쟁을 벌렸다. 금혜맞은 괴뢰당국은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통성투쟁참가자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참가자들속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에서 특대형참사인 《세월》호침몰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각계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면서 《정권》유지를 위한 파쑈적탄압에 계속 광분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속에 《세월》호침몰의 주요원인의 하나가 밝혀졌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월》호는 출항당시 최대적재량을 훨씬 릉가하는 화물을 실었는데 거기에는 410t이나 되는 특수용도의 철근이 포함되여있었다. 이 철근은 다름아닌 괴뢰당국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리용될 예정이였다.

이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남조선당국이 무엇때문에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한사코 방해해왔는지 알수 있게 되였다.

괴뢰당국은 제주도인민들과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복심을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추진해왔다. 특히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 2014년 정초부터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 강정마을주민들과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진압소동을 벌리는 한편 공사가 지연되는 리유를 따지며 자재보장을 담당한 기업체들을 들볶아댔다고 한다. 이 과정에 《세월》호에도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수백t의 철근이 규정량을 초과하여 적재되였으며 결국 이것은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의 생죽음으로 이어졌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괴뢰집권세력은 저들의 이 범죄행위가 알려지는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였다. 하여 사건의 진실을 가리우기 위해 온갖 방해책동을 일삼았던것이다. 최근 남조선의 한 언론로조가 폭로한데 의하면 청와대께거리들은 어느 한 방송회사에 집권자가 《세월》호와 관련한 편집물을 보았다고 하면서 당국과 관련된 자료들을 편집내용에서 빼으라고 여러차례나 전화로 요구했다고 한다. 《세월》호침몰사건수사를 맡은 합동수사본부라는것은 특수용도철근의 적재량을 줄여서 발표함으로써 당국의 범죄행위를 감추려고 꾀하였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최근에는 보수당국이 《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한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사업을 극구 가로막아나선 문제들이 여론화되면서 민심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원래 괴뢰당국은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가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자 마지못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하였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이라는것을 발표한 후에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저들의 끄나풀들을 박아넣고 위원회의 수사권한을 제한하는 등 음으로양으로 이 기구의 사업을 방해하여왔다. 또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들에게 조사를 받기는 황당한짓을 했는가 하면 수사에 참가한 인사들에게 《세금도적》이라는 오명까지 씌워 그들이 수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에 필요되는 예산청구액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 《세월》호선체인양작업과 수사활동진척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비렬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것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세월》호인양작업을 지체시키면서 이렇게 하나 시간을 끌어 저들의 죄악이 영원한 비밀로 바다속에 잠겨있도록 하려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 활동을 가로막는 괴뢰집권세력의 처사는 이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합법적인 존재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올해 6월말까지라고 하면서 이 기구를 빨리 해체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 각계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존재기간은 기구가 정식 출현한 지난해 8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사사업을 연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렇게 되자 할 말을 잃은 괴뢰집권세력은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비공개제안이라는것까지 들고나왔다. 이 얼마나 비렬하고 추악한 범죄자들인가. 그뿐이 아니다. 괴뢰당국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에게 응당 지불하여야 할 보상금을 놓고서도 그것을 받으려면 참사와 관련한 일체 다른 의문들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것을 강요하여 여론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보다 싶이 괴뢰당은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한사코 가리워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반역정책과 부패무능의 산물인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은 점차 드러나고있으며 범죄자들이 대참사의 책임을 지고 력사의 심판대에 오를날이 다가오고있다.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은 현 괴뢰집권세력의 과멸을 앞당기는 도화선으로 될것이다.

김철남

유엔사무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문제가 반영된 유엔총회결의리행에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부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유엔사무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 참가자들의 2016년 6월 9일부 편지에 대한 회답을 보내온것과 관련하여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8일 유엔부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그는 편지에서 평화와 안전, 통일문제는 핵전쟁발발의 극단상황으로 치달고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하에서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유엔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문제와 관련한 1975년 제30차 총회결의와 2000년 제55차 총회결의 그리고 2007년 제62차 총회결의를 각각 채택한바 있다.

그 결의들에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외국무력을 철수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 그리고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리행할데 대한 문제 등 중요한 내용들이 반영되여있다.

조선의 북과 남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한 상기결의들은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방해책동으로 오늘까지 어느 하나도 리행되지 못하고있다.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한 유엔총회결의들의 성격과 의의로 보나 유엔의 사명으로 보나 유엔사무국은 마땅히 그 결의들의 리행에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문제와 관련한 유엔총회결의들의 리행문제는 누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될것이며 공정성과 독자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사무국의 활동원칙에도 부합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해결을 가로막고있는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시키고 조선의 북과 남 그리고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유엔총회결의들이 리행되도록 하는데 유엔사무국이 적극 기여하기 바란다.

국제기구들 로동운동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 비난

괴뢰패당의 반인민적폭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

5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국제인권련맹과 국제로동조합총련맹, 유럽로조총련맹, 세계고문반대기구가 민주로총 위원장 한상균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반인권적폭압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제기구들은 성명을 통해 남조선법원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로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로동정책과 로동권침해를 비판하는 로조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으로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밝혔다. 남조선에서 로조핵심들에 대한 탄압과 위협, 가혹한 처벌이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기구들은 남조선당국이 민주로총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로조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권유린범죄자들의 파렴치한 모략소동

동족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에 질어있는 박근혜패당이 황당무계한 《북인권》나발을 지겹게 불어대고있다. 최근에도 괴뢰집권자는 제20대 괴뢰국회개원식을 비롯한 이러저러한 장소와 계기들에 《북인권실상》이니 뭐니 하고 현실을 파렴치하게 외곡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망동을 부리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의 돌격대가 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괴뢰패당의 이런 추태는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는 반공화국《제재》소동과 때를 같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태는 더욱 엄중하다.

우리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참다운 인권의 화원이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응당 선차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며 신성한 권리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실현시켜주고있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무상치료, 무료교육과 같은 온갖 사회적혜택속에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이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있는것은 참다운 인권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과 날로 더해가는 위력에 놀란자들의 공포심, 정신착란증의 발로이다.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허위와 날조에 기초하여 동족을 모해하고 압살하기 위한 특등사기극이다.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헐뜯으며 떠들어대는 그 무슨 《북인권》문제라는데는 그 어떤 신빙성도 없다. 그것은 괴뢰패당이 인간쓰레기들을 몇푼의 돈으로 매수하고 부추겨 조작해낸 날조품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내몰고있는자들은 하나같이 부모처자와 고향을 등지고 조국을 반역한 범죄자, 이름과 경력까지 위조하며 더러운 입방아질로 목숨을 연명해가는 인간추물들이다. 이런 쓰레기들이 괴뢰당국의 부추김밑에 범죄적인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충견노릇을 하고있다.

이자들의 목적은 비러지같은 명줄을 이어가는것이다. 그를 위해 경쟁적으로 각종 허위자료들을 꾸며내는가 하면 국제무대에까지 기신기신 찾아다니며 우리 공화국을 마구 헐뜯는 모략자료들을 《증언》이니 뭐니 하며 내돌리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언론들도 인간쓰레기들이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보수언론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의도적으로 자료를 꾸며내고있다. 그들의 거짓증언과 그것을 옹도하는 보수언론, 거짓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북인조장하는 당국의 처사로 하여 〈북인권〉문제가 생겨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가.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은 몇푼의 돈을 위해 반공화국《인권》모략자료들을 끊임없이 조작해내고 괴뢰들은 그에 토대하여 《북인권》나발을 요란히 불어대며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대결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극구 여론화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감히 흐려놓고 국제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기운을 고취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지금 괴뢰들이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제재》소동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는 속에 《인권》모략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외세와의 《대북압박》공조의 강화로 동족을 한사코 해치고 《제재통일》의 흉악한 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 괴뢰역적패당의 속심이다.

하지만 남조선괴뢰들은 아무리 《북인권》나발을 목터지게 불어대도 공정한 여론을 속일수 없으며 반공화국도발소동에 깔린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가리울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가장 처참히 유린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은 남조선이다.

최근 유엔인권리사회가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한 남조선의 혐악한 인권실태자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유신》독재체제가 되살아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보수《정권》의 반역정책을 반대하는 합법적인 정당, 로조, 언론들이 정치적탄압의 대상으로 되여 강제해산, 강제폐간되고있으며 수많은 량심수들이 철창속에서 모진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당국을 비호하거나 동족을 헐뜯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정의와 진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다.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동포녀성이 《북의 맥주가 맛이 좋다.》는 말 한마디 하였다고 하여 《종북》으로 몰려 남조선에서 강제추방당한 사실은 괴뢰패당이 말끝마다 구정물처럼 토해내는 그 무슨 《표현의 자유》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의 남조선은 막걸리 한잔 마시며 독재자를 비난해도 남산지하실에 끌려가야 했던 암흑의 《유신》독재시대와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가장 초보적인 인권인 로동의 권리, 생존의 권리도 무참히 빼앗기고있다. 경제파국으로 실업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속에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은 한 로동자가 자식들에게 피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는 마지막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는 이것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남조선근로인민들의 불행한 모습이다.

과거 군사파쑈독재를 무색케 하는 언론통제, 보도관제까지 강행하며 인민들의 생존권투쟁을 말살하는 현 괴뢰보수당국의 살인폭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그 싹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남조선의 암흑천지에 대한 생동한 고발이다.

다 꿰진 창호지구멍으로 남의 집 대문을 흉본다고 남조선을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의 처참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범죄자들이 감히 인민대중의 자주적삶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들고있는것은 그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죄자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제아무리 미쳐날뛰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더우기 해외에서 백주에 우리 인원들을 유인랍치하는 반인륜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저들의 강제억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무슨 《자유의사》니 뭐니 하는 궤변을 내뱉으며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랭혈한, 천하무도한 악귀들의 《북인권》나발이 과연 어디에 통할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혀는 자기의 목을 베는 비수로 되는 법이다.

박근혜패당은 동이 닿지 않는 《북인권》나발을 계속 불어대며 모략에 광분할수록 저들의 곪아터지는 인권허물만 세계면전에서 더욱 드러내고 북남관계를 극도의 파국상태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는 규탄의 목소리만 높아갈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효진

ㄱ-61111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6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